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성경말씀: 느2:17-20

이 나라와 민족,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선 시대 말기의 극심한 당파 싸움, 국력의 쇠퇴, 1910년 8월 22일, 경술국치 한일합방
1945년 8월 15일까지 만 35년 동안 국가를 잃었다.

1948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승만 정권이 섰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 개발, 그 이후의 민주화 시대, 세계경제 10위, 이 역사가 자랑스러운가?

서울대 교수의 기고문: 국가 만들기: 정치가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인도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내루: 기질과 정신은 자유주의자였지만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못함. 정치적 민주주의, 소련식 통제 경제

한국과 인도의 경험, 민주주의, 경제발전, 주권수호, 사회통합을 '동시에'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
이승만과 박정희로 대표되는 한국의 국가 건설자들은 주권 수호와 경제 발전을 우선과제로 삼고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후순위에 두는 결정을 내렸다. 그 와중에 상당한 폭력과 희생이 따랐지만
우리는 절대 빈곤을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압축적 산업화를 거쳐 압축적 민주화까지 이루었으며,
앞으로 진정한 사회통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으로 남아 있다.

반면 인도의 국가 건설자들은 민주주의 유지와 사회주의적 경제발전 기조에 집착했다. 그 과정에서
인도는 폭력과 희생에 덜 노출되었지만 국가 만들기의 중요한 기본인 경제발전을 지연시키고 말았다.

1950년 당시 똑같았던 한국과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 15.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우리는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 ★★★

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했기에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보장되었다.

그런데 지금의 나라 현실은 참으로 불안하다.

정신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

책을 읽지 않는다. 신문을 읽지 않는다. 인터넷 매체의 편파적인 선정성 보도에 모두 매달려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종교 측면에서 다양한 이단들이 출현하고 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기독교의 심각한 타락: 대형 교회와 목사들의 극심한 타락 ★★★

이 타락에는 교리적 타락이 가장 크다.

교리가 없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딤후3:16은 그와 정 반대다.

성경에 의한 판단이 아니고 목사, 교회, 교단에 의한 판단이 중요하다.

성경의 부패가 극에 달했다. 메시지 같은 부패한 성경의 득세

기복 신앙이 극에 달했다.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임할지 모른다.

내일 모레는 92주년 삼일절, 1919년 3월 1일을 기념하는 삼일절이다. 33인의 독립선언서 발표

이런 시점에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

느헤미야

유다의 극심한 타락, 우상 숭배,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

스룹바벨(BC536), 에스라(BC467), 느헤미야(BC454)의 귀환

느헤미야 1장 2-3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탄 상태이다.

금식 기도, 죄들의 자백, 명령의 불순종이 패망의 원인임을 고백함

하지만 주님의 약속에 따라 민족을 다시 본토로 데려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함

느헤미야: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잔을 드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주로 도시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적개심은 날로 증가하였고 그곳의 총독인 산발랏의 인도
하에 그들은 온갖 방해 공작을 꾸몄다.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도 공격하였고 이에 느헤미야는 그들로
하여금 손에 무기를 들고 일하게 하였다. 이 큰 일에서 그는 열정을 보였고 하나님의 도시와 백성을

향해 큰 사랑을 나타내었으며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는 신실한 친구들 특히 에스라의 도움을 크게 받았고(느8:1, 9, 13; 12:36)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 제도를 향상시켰다. 그 뒤 그는 바빌론으로 되돌아왔다가(느2:6; 5:14; 13:6) 몇 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예배, 안식일 준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 등 중요한 일을 잘 해결하였다. 그는 특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 여인들을 버리든지 혹은 나라를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였다. 느헤미야기는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자기의 일생 동안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느헤미야의 행적

1.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느1): 하나님의 일과 백성에 대한 염려와 관심 ★★★
2. 왕의 허가를 받았다(느2:1-11): 조심스럽게 왕을 공경함
3. 직접 문제를 살펴보았다(2:12-16):
4. 사람들을 격려하였다(느2:17-18):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나님의 일을 세워 보자!
5. 대적들의 반격을 예상하고 적절히 대응하였다(느2:19-20)
6. 일을 시작하였다(느3장)
7. 대적들의 극심한 반대와 조롱(느4:1-4)
8. 외부의 대적들(느4:7-8)
9. 내부의 적들(느4:9-12)
10. 적극적인 대응(느4:14-23)
11.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됨(느6:15-16): 원수들의 기절초풍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1. 뚜렷한 목적의식(느4:6): 왜 여기에 모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오염으로 인한 의로운 분노가 있는가? ★★★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 인한 성도들의 고통을 느끼는가?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른 것을 물려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2. 확실한 자기희생(느4, 5:14): 준비된 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임이 아니다.
 축구 경기, 배구 경기, 농구 경기가 아니다.
 일생을 걸어야 하는 문제이다. 확실한 자기희생이 있어야 한다. ★★★
 느헤미야는 확실하고 안전한 직업과 명예를 부귀를 버리고 이 일에 매진하였다.
 백성들과 동고동락하였다(목사 따로 성도 따로 놀지 않는다), 느4:23
 역할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희생을 하였다.
3. 불굴의 의지
 외부의 적들: 기독교 안티 사이트, 반 기독교 정서, 말세의 징조
 대적들이 바로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있다. 심지어 독립 침례 교회 안에도 있다.
 자기들의 특정한 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성경을 내는 자들이 생긴다.
 조롱(4:1-6), 음모(7-9), 낙심시키는 일(10), 두려움(11-23), 이기심(5장), 4번 타협안(6:1-4), 5번째는 중상모략(5-9), 죽이겠다는 위협(10-16), 밀고(17-19)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6:1), 하나님이 하신다

1. KJB의 확산과 보급, 2. 바른 교회의 설립, 3. 바른 목회자 양성
4. 이것이 한국을 살릴 근본적인 대책이다.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

결 론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보고는 실패와 좌절 뒤에 그물을 김다가 주님을 만남(마 5:18), 우리는 어떤가?

마28:19-20의 약속